



9 + 10월호 표지 이벤트 당선작

지난 9+10월호 스티커 이벤트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울산S-OIL #2 SPM 현장 완공 후의 모습을 스티커로 표현해주셨네요.
 11+12월호 스티커를 색칠해 알록달록한 나만의 스티커로 표지를 꾸며주세요.
 개성이 더해진 다양한 응모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세무팀 이운석 차장	토목기전외주팀 안방영 과장	중부지역기계팀 오대현 차장
인도비하르교량PJ현장 염준원 차장	인천한들구역부지조성현장 장문석 부장	해연로제3공장건설공사현장 김창욱 차장
서부지역기계팀 허노운 사원	해외토목사업지원팀 이재규 차장	지역안전팀 전준현 과장

표지 스티커 이벤트

동봉된 정대우 스티커를 표지에 자유롭게 붙여 나만의 표지를 완성해보세요!
 스티커를 색칠하면 더욱 멋진 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2/31)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스티커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enc.com



20



16



28



34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디자인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재이
 표지 일러스트 이시누
 인쇄 금강인쇄

2	대우건설 창립 47주년 창립기념사
4	THEME VIEW 쓰담쓰담 -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스한 칭찬과 감사
6	THEME POLL - 2020년의 우리 땡큐 베리 감사 -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12	THEME TALK 쓰담쓰담 마음 상담소
16	THEME VISION The power of youth 대우건설 주니어보드
20	현장STAR그램 사계절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바람, 시화해양레저공원현장& 시화해양레저공원클럽현장
28	정대우로드 알면 알수록 새로운, 21세기 인도
33	WORK & LIFE 가족의 온도
34	취미유발자들 어느 보통날, 꽃과 함께
38	내용 보고서 우리 가족 입안 건강법
40	주말에 뭐하지 2021년 라이프 트렌드 미리보기
44	대우건설인+ - 자, 떠나자 갑오징어 잡으러 - 대대홍 17기 1라운드 미션 정대우 과장의 흥과 끼를 펼쳐라! - 방울방울 사랑 나눔 - 2020<대우건설인>에 대한 생각은
52	대우건설 뉴스 2020년 11+12월 대우건설 뉴스
56	독자후기



DAEWOO
E&C 47th
Anniversary

정확한 현실 인식과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대우건설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회사를 위해 국내외에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대우건설을 향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발된 유가 하락, 환율 변동성 확대, 인적·물적 교류의 제한 등으로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건설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우건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타개하고자 수주, 매출, 영업이익, 현금흐름 등 주요한 경영지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체계적이고 정밀한 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으로 경영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부분의 성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글로벌 선진사들이 독점해온 LNG 액화 플랜트 건설 EPC 시장에서 당사 지분 약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LNG Train7 EPC 본계약 체결을 통한 원청사 지위 확보와 연내 약 35,000세대 공급을 통해 주택공급 1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이라크에서는 우수한 수행력과 발주처 신뢰 관계로 추가공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 확대, BTS(Build Together Startups) 프로그램의 일환인 방산, 드론 기술, 전기차 충전지 부분 투자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로 회사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수주 확대 및 매출 증진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며, 여기에 실적 및 원가 개선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2020년 경영계획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현실에 대한 안주는 가까운 미래조차 담보하지 못할 것임을 인지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CRM 시스템 구축, 부동산 시장분석 등 마케팅 역량 강화로 양질의 수주를 확대하였으며, Risk & Opportunity 관리 강화 및 Lessons Learned 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행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주/계약 시 정확도 향상과 수행 리스크 관리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입찰/전적 Proposal 역량 강화로 원가 경쟁력 제고 및 수익 극대화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정립 및 구축을 통한 경영 인프라 혁신으로, 미래 건설산업을 주도하는 선진 건설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시스템은 사업 수행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손실 발생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미비한 기준은 새롭게 수립·정립하고,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은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의 효과로 이어져 대우건설의 중장기 전략 목표 달성과 함께 밝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건설업에서 안전과 품질은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덕목입니다. 이를 반드시 지켜나가기 위해서, 관행과 타성에 따라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원 개인 및 회사의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준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0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전 임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계획한 목표가 하나둘씩 성과로 반영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좀 더 확실한 경영성장으로 반영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상호 신뢰 하에 모두 다 함께 매진하여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임직원 모두가 꿈을 이루고 대우건설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주)대우건설
사장 김 형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스한 칭찬과 감사



- 6 THEME POLL ————— 2020년의 우리
땡큐 배리 감사
- 12 THEME TALK ————— 쓰담쓰담
마음상담소
- 16 THEME VISION ————— The power of youth,
대우건설 주니어보드

상대방의 감정과 사고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와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를 공감능력이라 합니다.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눈만 보고도 그 대상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등한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 사람에게 대한 공감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파악하게 되면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게 되고, 말이 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쌓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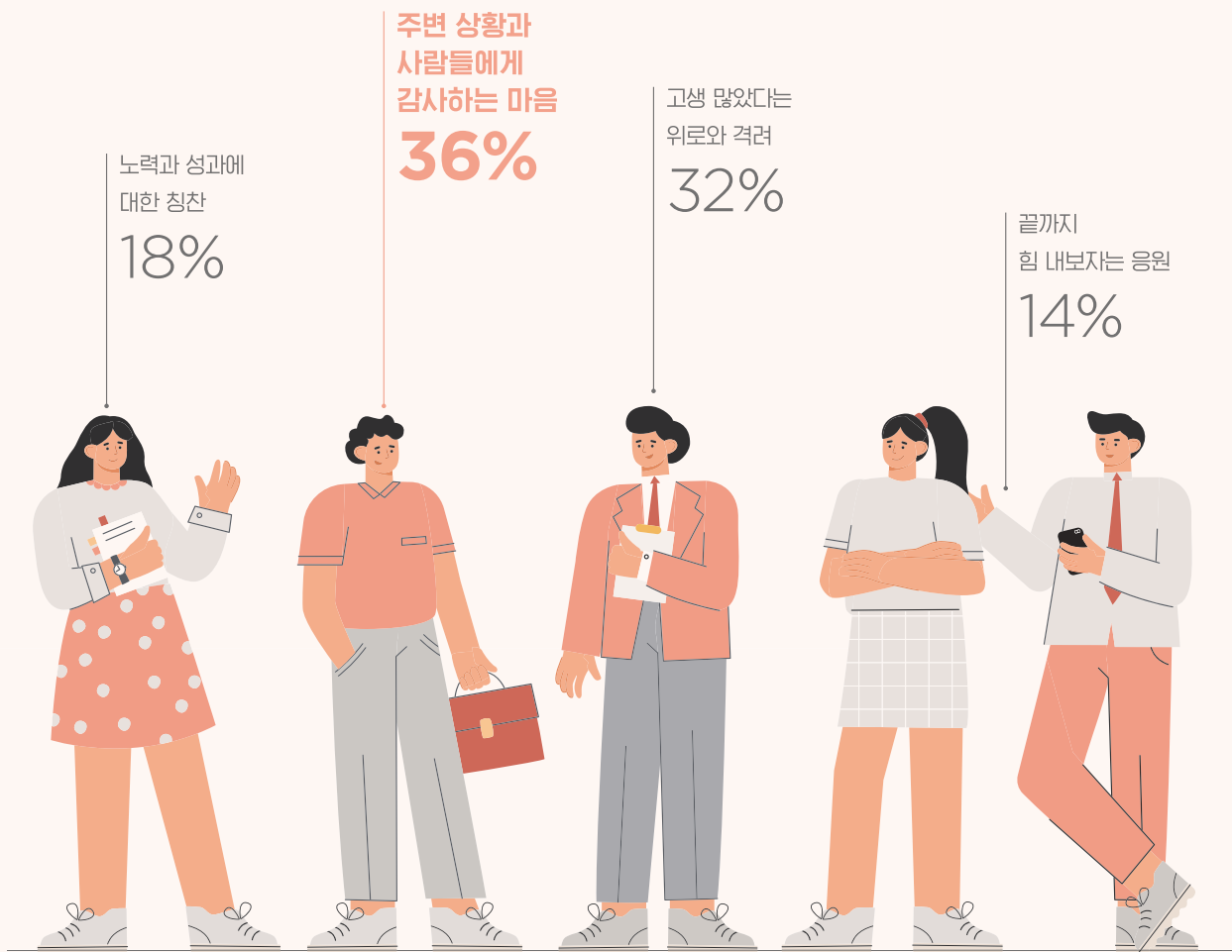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고 옆자리 동료들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감이 필요한 동료에게는 경청을, 격려가 필요한 동료에게는 힘내라는 말을, 많이 지친 동료에게는 잠시나마 힘내지 않아도 좋다고 말해봅시다.

2020년의 우리 땡큐 베리 감사

무엇이든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적어도 나만큼 고생했을 동료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자. 대우건설인 150명에게 칭찬과 감사에 대해 물었다.

Q1

다가오는 연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칭찬, 고생 많았다는 위로, 마지막까지 힘내자는 응원, 주변 사람들을 향한 감사. 다사다난했던 올 2020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 겨울, 대우건설인들이 스스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설문 결과, '주변 상황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1위를,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는 위로와 격려'가 2위를 차지했다.

Q2

칭찬은 사원도 부장도 춤추게 한다!
나를 가장 많이 춤추게 하는 칭찬 내용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동기를 알아봐 주는 칭찬
52%

구체적인 행동과 행동이 주는 긍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칭찬
21%

인성과 태도, 마음가짐에 대한 칭찬
15%

능력 및 성과에 대한 칭찬
12%

Q3

주변 동료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표정과 말투 등 일상 속 태도에 신경 쓰기
67%

사소한 것부터 큰 성과까지, 틈틈이 칭찬하기
18%

도움이나 배려에 대한 감사 인사 빼놓지 않기
13%

결혼, 승진 등 특별한 날에 축하와 성의 표현하기
2%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 결과, 회사에서 가장 칭찬받고 싶은 상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직속 상사라고 답했다. 나를 아는 사람의 진정성 담긴 칭찬과 관심이야말로 행동의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더불어 결과보다 노력과 동기에 초점을 맞춘 칭찬은 인정과 격려, 지지와 응원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대우건설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동료들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을까? 설문에서 참여한 67%의 대우건설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정, 말투 등 일상 태도'를 꼽았다. 한 번의 거창한 표현이나 감사 인사도 좋지만 평소 태도로 충분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Q4

지금 내게 필요한 바로 그 문장! 감사함에 관련된 격언 중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질책보다는 침묵이,
침묵보다는 칭찬이,
칭찬보다는 감사가
낫다. ‘잘했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고마워, 도움이
됐어’라고 감사하라.”
43%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거울 속 나를 대하듯
상대를 대하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
28%

“삶에 대한 애정과 감사는
주변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18%

“바다의 시작은 작은 물방울이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면 언젠가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13%

대우건설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감사 관련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책 <성공하는 CEO의 습관>에서는 “다른 사람을 치켜세우는 것은 자기중심, 칭찬은 상대방 중심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칭찬하기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하라. ‘잘했다’는 칭찬은 개인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지만, 감사 표현은 상대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마음의 거리까지 가깝게 한다”고 말했다.

Q5

칭찬인 듯 칭찬 아닌 너!
불편하거나 찝찝하기만 한 칭찬은?

잔뜩 칭찬하고
뒤이어 바로 부탁할 때
46%

다른 팀원의 단점과
내 장점을 비교하며
칭찬할 때
36%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 칭찬을 길게 할 때
13%

“정말 예쁘다”, “너무
착하다” 등 외모, 성품을
지나치게 칭찬할 때
4%



진심이라 하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한 칭찬도 있다. 응답자의 46%가 ‘칭찬을 한 뒤 뒤이어 바로 부탁할 때 불편하고 찝찝하다’고 답했다. 우리는 상대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말과 행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선의를 담은 행동마저 수단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Q6

짜릿해! 늘 새로워! 최고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 듣기 방식은?



바로바로, 칭찬거리가
있을 때마다 듣기
40%

더 은근하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기
39%

더 크게, 많은 사람
앞에서 듣기
11%

더 자세하게,
일대일로 만나 듣기
10%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선호하는 칭찬 듣기 방식도 각자 다를 것이다. 40%의 응답자가 ‘칭찬거리가 있을 때마다 바로 칭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칭찬이 좋다’는 답변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응원하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칭찬할 기회를 매 순간 호시탐탐 노려보도록 하자.

Q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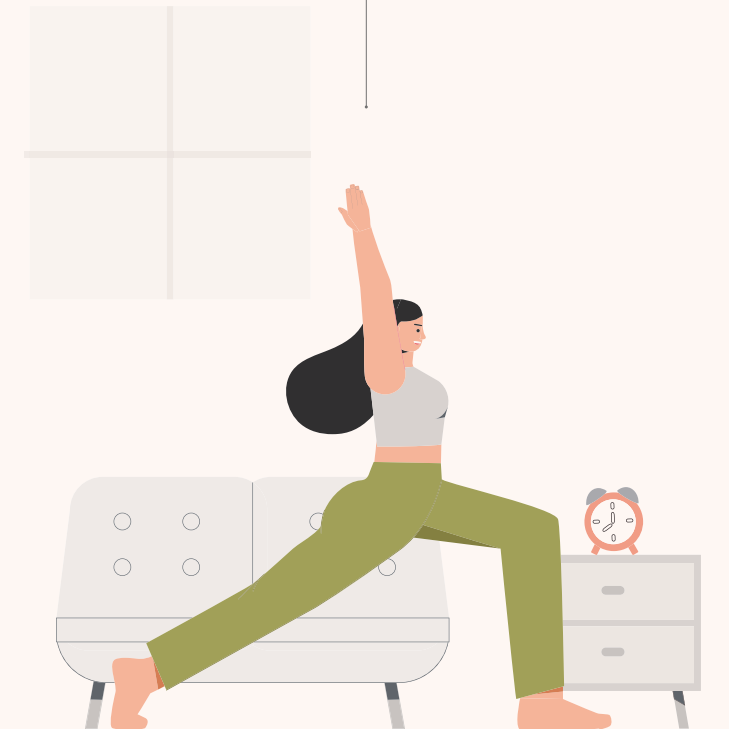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날,
내가 가장 선호하는 셀프 감정케어 방법은?

릴렉싱 활동하기 -
아껴둔 향초 켜기,
산책, 스파 받기 등
50%

몰입하기 - 독서,
피규어 조립, 청소 등
22%

잘 먹기 - 근사한 음식점
가기, 나만의 소울푸드
먹기, 직접 요리하기 등
20%

생명 돌보기 - 식물
기르기, 동물 돌보기 등
4%



나만의 감정 케어가 필요한 날, 대우건설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의 기운을 북돋우고 있을까? 절반의 응답자가 ‘산책, 스파 받기 등의 릴렉싱 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독서, 청소 등에 몰입하기’, ‘직접 요리하거나 나만의 소울푸드 먹기’, ‘생명 돌보기’가 차례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잠자기’, ‘집에서 맥주 한 잔 마시며 뒷담화하기’, ‘인터넷 쇼핑하기’, ‘영상하기’ 등이 있었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괜히 속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말, 말 안 해도 어련히 알겠지 넘겼던 마음.
감사, 격려, 응원을 담아 써 내려간 여섯 개의 짧은 편지를 띄워보는 시간.
(편지를 받은 여섯 분에게 <대우건설인> 편집실에서 소정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To. 남성훈 대리님께
카타르E-RING도로PJ(현장)

선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뒤로한 채, 선배가 아쉬움과 함께 해외 현장으로 떠난 지 어언 2년이 지났네요.
코로나 영향으로 사랑하는 형수님, 딸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줄어든 요즘, 선배를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같은 팀으로 입사해 유일한 선후배 관계로 마음 터놓고 오랜 기간 일해왔는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자리를 옮기게 되어 아직도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가끔 주고받는 연락에 옛 기억을 떠올리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금 간절해집니다.
언젠가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젝트로 만날 때가 돌아오겠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카타르 현장 준공 소식을 하루빨리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From. 익명

To. 이정후 소장님께
울산북항터미널1단계건설공사PJ(현장)

이정후. 언제나 곁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꽤나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었네. 서로 바쁜 와중에도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자주 연락했다는 것을 우린 안다.
늦은 밤 이렇게 오늘도 보내는구나.
같은 날 입사해 지금까지 30년. 생각해보면 서울역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종로시장의 빈대떡집에서, 울지로 어느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함께한 그 시간이 오늘도 지나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임금피크를 맞이하겠지. 직장이라는 최고의 정점에서 많은 회로에락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또 다른 그 오늘이었다.
오늘이 가면 또 다른 오늘이 오니 오늘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30년 동안 동료로서, 친구로서 항상 옆에서 함께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잠시 지면을 빌어 감사함을 보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해이지만, 나름대로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겠지만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직 우리가 결론 내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 사돈 맞지? 고맙고, 감사하다.

From. 이봉주



To. 임선우 부장님께
알제리RDPP현장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죠.
현장 Demobil 시점에 신규로 부임한 임 부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긴 현장 생활에 나도 모르는 타성에 젖어 있던 때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규와 회사 규정, 절차서에 따라 너무 원칙으로 일관하는 원칙주의자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와 근면함 그리고 성실함으로 푹푹 뭉친 임 부장님을 옆에서 지켜보며 말이에요.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태도 역시 참 본받을만 하다고 느낍니다.
임 부장님 덕분에 타성에서 벗어나 내 삶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더욱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서는 마음가짐까지 배우게 되어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From. 달

To. 김남구 차장님께
토건설계팀

김남구 차장님! 대우건설에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자리 잡을 때까지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알려주신 차장님 덕분에 제가 무사히 회사와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맡은 일에서도 성과를 하나 둘씩 만들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역시 차장님의 공이 컸고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서로 보이지 않게 의지하면서 끈끈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상생의 에너지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장님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From. 강진우 차장 공정설계팀

To. 류지용 차장님께
기계설계팀

차장님 안녕하세요.
시간을 돌이켜 보니, 사실 차장님과 알고 지낸 기간이 그리 길지 않네요. 하지만 벌써 저는 차장님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친동생처럼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며 같이 고민해주신 덕분입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술 한잔하고 싶은 날이면 차장님께서 꼭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텔레파시가 통하는 사이인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좋은 동료이자 동생이 되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꼭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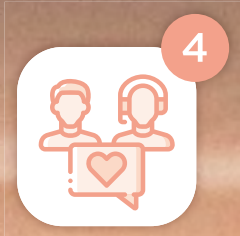
From. 익명



To. 안진석 사원님께
디지털건설팀

우리 팀 막내 진석아!
터널 현장에서 수년간 고생 많았다. 터널 현장은 날씨에 관계없이 24시간 3교대로 루틴한 공정이 반복되다 보니, 공사팀 담당자들이 정말 힘들지. 그 고생과 힘들음을 안다. 그곳에서 1~2년도 아닌 수년 동안 진석이 넌 참 잘 견뎌왔다! 누에가 긴 시간을 거쳐 나비로 변해 훨훨 날아가듯, 네가 터널에서 나와 지금의 드론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 같지 않니?
그동안의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꿈과 사랑 그리고 멋진 미래를 대우건설에서 펼쳐보렴! 항상 파이팅이야. 난 너를 유비쿼터스로 응원한다!
(참, 너 내가 터널 전문가인 건 알고 있지?)

From. 백가이버



쓰담쓰담 마음 상담소

ID: 을지로사이가이
칭찬 받는 게 너무 어색해요.
센스 있는 대처법 없을까요?

답변보기

직장생활 1년 차, 5년 차, 10년 차, 20년 차...
나이가 들어도, 경력이 늘어도 회사생활에서 만만한 것은 없다.
칭찬 잘하기, 칭찬 잘 받기, 매년 돌아오는 연말 기본 좋게 맞이하기 등
각자 다른 이유로 고민에 빠진 동료들에게 전하는 조언.

ID: 팀장이니까야

1

팀원과의 대화가 가장 어려운
1년 차 팀장입니다.
주니어 때부터 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동기 중 승진도 가장
빨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팀장이 되고 보니
일보다 팀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처럼’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저를 불편해
하는 게 싫기도 하고요.
팀장의 언어, 혹시 따로 있나요?

회사에서 일보다 어려운 게 사람 간의 소통인데요.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3명 중 2명은 상사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고, 경영진 2명 중 1명 역시 부하직원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네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도 왜 우리는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물론 말을
주고받는다 해서 전부 소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타인과 무언가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이자
한 회사의 CEO이기도 한 켄 블랜차드는 휴가지에서
조련사들이 범고래와 함께 펼치는 멋진 쇼를 보고 크게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범고래와
조련사들은 대체 어떻게 소통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범고래와 훈련하기 전에 물속에서 놀며 친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잘한 일에 크게 기뻐하고 칭찬하는
게 저희만의 소통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라는 조련사의
말에서 인간관계의 해법을 찾았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긍정의 언어로 쌓는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리더의
권위는 말투나 표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리더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뗏목배와도 같다고 해요. 밑에 있는 동료들이
뒹우면 뜨고, 파도가 거세게 일면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 리더의 권위는
말투나 표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D: 일터에서 사이가

2

아직 이것저것 배우는 중인 막내 사원이에요. 혼자 업무를 하기보다는 팀장님을 비롯해 대리님, 과장님 모두에게 업무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칭찬을 받는 게 너무 어색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고작이에요. 좀 더 센스 있는 대처법 없을까요?

한때는 예의와 겸손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만약 칭찬이 인색한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칭찬받는 게 더욱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 칭찬들이 기분 나빴던 건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주변 사람에게 나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지요. 하지만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마음과는 정반대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웃이 참 예쁘네요”라는 말에 “고마워요” 말하기보다는 “아니에요, 웃은 예쁘데 저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혹은 “이거 몇 년 전부터 입던 건데요”라고 대답하는 식입니다. 진심으로 한 칭찬에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면 괜히 머쓱하고 민망해지겠죠.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지도 몰라요. 칭찬을 잘하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칭찬을 잘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을 쓴 레일 라운즈는 “칭찬을 주고받는 것은 부메랑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그 좋은 마음과 감정을 칭찬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의 호의를 놓치지 마세요. **칭찬에 응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기분 좋아요”라고 말하면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보이는 작은 관심에 기꺼이 고마워하며 밝은 기운을 되돌려주기, 칭찬과 감사로 이뤄보도록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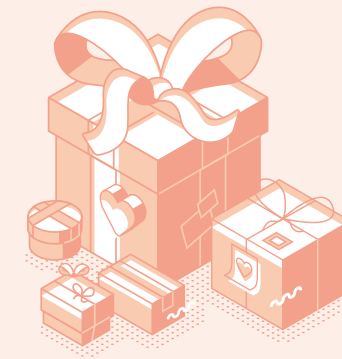
“누군가가 나에게 보이는 작은 관심에 기꺼이 고마워하며 밝은 기운을 되돌려주기, 칭찬과 감사로 이뤄보도록 해요.”



D: 연말마무리

3

다가오는 연말이 싫은 30대 중반 직원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연말이 되면 괜히 우울해지더라고요. 1년 동안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거리에서 캐럴을 듣거나 반짝이는 장식물들을 보면 왠지 울컥하기도 하는데, 저 이상한가요?



‘연말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한시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을 연말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심리학회는 휴일과 명절, 연말연시에 느끼는 이 심리상태를 ‘홀리데이 블루스(Holiday Blues)’라는 정식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말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계절 탓이기도 합니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 우울증에 빠지기 더 쉬워지는 것이죠. 전문 용어로는 계절성 우울장애라고도 합니다. 심리적인 이유도 있어요. 한 해 동안 성취한 것이 없다는 허무감이 들기도 하고, 나만 만날 사람도 모임도 없는 ‘연말 고아’가 된 기분이 들고는 합니다. 연말이 반드시 특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먼저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전화를 할 수도 있고, 올해 나와 가족이 이룬 업적을 정리하고 자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임이나 파티가 어렵다면 기부나 봉사도 시도해볼 수도 있겠네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SNS를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면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거나, 바쁠 때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는 등 나를 위한 활동을 즐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과거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의미를 두며 2021년을 기다려봅시다.**

D: 어닝파워가

4

TFT팀을 꾸려 관리하게 됐어요. 연차도 다르고 경험 분야도 완전 다른 직원들이 모였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다 보니 부담이 있네요. 관리자로서 팀원들의 사기와 단결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일수록 팀워크가 중요한 법입니다. 훌륭한 팀워크를 발휘하는 조직의 특징 중 하나는, 팀원 모두가 평등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된 경우, 집단 내 아이디어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디어의 양이 더 많아지면 상호작용 즉 충돌과 연결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경험과 연차를 떠나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열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욕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팀원들의 사회적 동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회적 동기가 끈끈하게 연결된 조직일수록, **팀원들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애정을 가질수록**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죠. 반대로 직장에서 외로움을 느낄 경우, 개인의 업무 수행력과 집단에 대한 기여, 타인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모두 낮은 성과를 보인다고 해요. 조직 내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 자신의 기여가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임승차’를 노리게 됩니다. 고독한 상황에서도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팀과 개인의 성과는 모두 팀워크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죠.

대우건설
주니어보드

The power of youth

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인프라 혁신에
나서고 있는 대우건설 주니어보드
1기를 만났다.





지난 4월, 대우건설 주니어보드가 출범했다. 이번 주니어보드 1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장급 이하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이사회로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종 및 직급별 발생하는 시각 차이를 줄여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는 ‘말랑한 작업’부터 관행적으로 시행해왔던 비합리적인 절차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 번에 대단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소소한 변화를 시작으로 유연한 근무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업무환경 마련 등을 통해 즐거운 일터, 다니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요구될 듯하다. 주니어보드 1기로 활동하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니어보드의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각 사업본부와 관리·지원본부, 현장과 본사 소속의 직원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현재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현장 근무 유경험자 위주로 꾸려져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으며, 입찰, 시공, 영업, 안전, 재무, 사업 등 건설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 같다.

바로넷 모집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한 직원과 본부 추천을 통해 합류한 직원이 있는데, 선발 과정과는 별개로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기업문화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방향을 논의하자는 데 생각이 일치한다. 현재로써는 기업문화에 대한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각 팀별(3인 1조)로 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주니어보드 1기의 전체 과제에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주니어보드 1기 직원들이 생각하는 자율적인 기업문화란 무엇인가.

기업문화란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점과 가치, 행동 등 종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에 자율적인 기업문화는 회사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임원부터 사원까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더 유연한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율적인 기업문화를 위한 어렵고도 힘든 첫걸음이라 하겠다. 우리 주니어보드가 생각하는 ‘자율’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포함된 단어다. 회사와 내가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임을 인식하는 임직원의 진심 어린 애정 필요하다. 최근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도 사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벌써 활동한 지 반년이 지났다. 주니어보드의 활동으로써 직원들이 알만한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많은 의견이 논의되었지만, 제일 먼저 사내 제도로 정착된 것은 ‘근무 복장 규정 개정’이다. 착용 금지 항목이었던 청바지와 운동화 등으로 착용 범위를 넓혀 좀 더 편안하고 자율적인 근무복장으로 유연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바로미 하단 배너에 ‘다니고 싶고 일하고 싶은 대우건설, 다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문구를 넣어 기업문화 개선을 홍보하고 있으며, 고마운 직원에게 하트를 발송하여 존중과 감사를 나누는 긍정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꾀하고 있다.

구체화 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사업 아이디어 도출 등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긍정적인 변화에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 제도를 만들어내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는지.

코로나19로 이번 주니어보드 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월 1회 전체 모임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오프라인 전체 모임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발의나 이견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 모임을 함으로써 활동 제약 없이 교류해오고 있다.

구성원 개인적으로는 주니어보드 활동으로 인해 맡은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 진행 및 개별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각 팀원들이 속해있는 기존 팀 및 실에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고 계셔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크다.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조금 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것 같다.

앞서 설명한 근무 복장 규정 개정이라든가 바로미 기능 추가 등이 회사 제도로 시행되었을 때가 아닐까. 주니어보드에서 논의된 사항이 공론화되어 실제 회사에 적용되니 정말 뿌듯했다. 주변에서 칭찬까지 해주니 정말 보람된 활동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간혹 칭찬에 그치지 않고, 기업문화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해주시는 직원들도 있다. 토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는다.

주니어보드 1기 직원들끼리도 많은 자극제가 되어주고 있다.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진 직원과 토론하면서 내가 미처 가지지 못한 더 넓은 시각과 다양한 간접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각 조직 특성의 다름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주니어보드 1기는 1년 임기제로, 내년 3월까지 활동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주니어보드 2기, 3기를 넘어 N기의 출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1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주니어보드를 위해 지금 우리의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주니어보드의 꾸준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활동까지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대우건설이 자랑스럽고 금치 높은 회사, 외부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 보겠다. 많은 응원 바란다.



1st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 복합테마시설

사계절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바람

시화해양레저공원현장 & 시화해양레저공원클럽하우스현장

시화호 북측, 거북섬에 조성 중인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전개로 경기도 시화의 해안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가 지난 10월 개장하며 사계절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관광중심도시로 자리를 잡는 데 힘을 실는 중이다. 사계절 내내 파도가 멈추지 않는 곳.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바람이 될 이곳에 시화해양레저공원현장, 시화해양레저공원클럽하우스현장이 자리하고 있다.

공사면적 **166,613** m²
넓이
인공서핑장 1개소, 파도풀장 1개소, 클럽하우스 10개 동

공사기간 **16** month
토목사업본부
19.06 - 20.09
11 month
주택건축사업본부
19.11 - 20.09



시흥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계절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의 개장을 시작으로 호텔, 마리나 대관람차 등의 추가 조성 사업을 통해 '한국의 골든 코스트'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바다 대신 육지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의 탄생

인공서핑 복합테마시설인 '웨이브파크'가 개장식을 갖고 우리나라 사계절 서핑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에 개장한 1단계 핵심 시설 규모만도 축구장 5배에 달하는 웨이브파크는 레저, 휴양,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레저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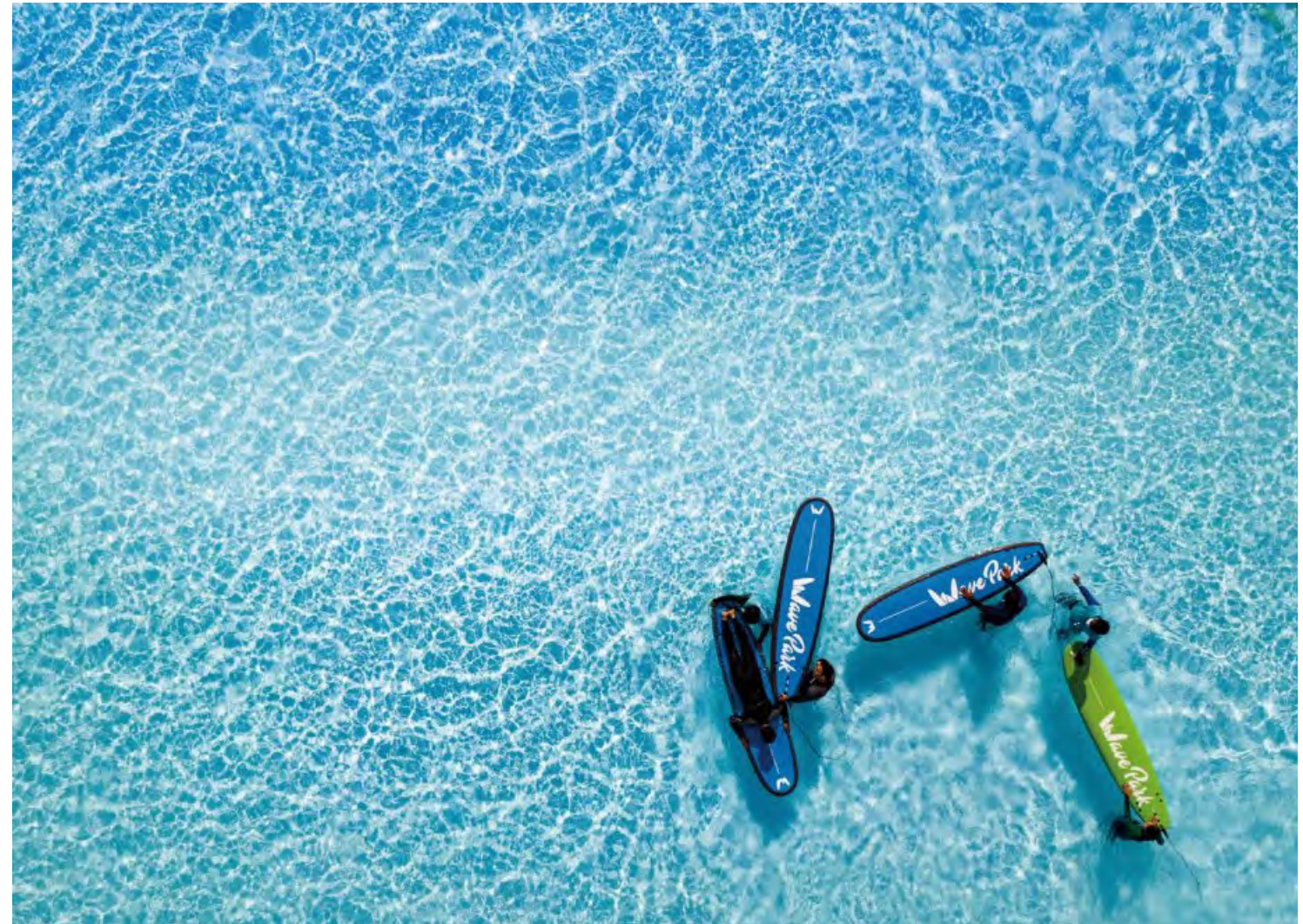
“우리 현장은 시화단지1공구현장에서 조성한 거북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주택건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다양한 파도를 경험할 수 있는 Surf Cove, 보드 없이 파도를 즐기는 Surf Wave, 클럽하우스 그리고 부대건물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계약 체결 후 지금까지 공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1단계 핵심 시설인 Surf Cove 구간 개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화해양레저공원현장(이하 레저공원현장)의 정경서 소장의 설명이다.

이번 현장은 주택건축사업본부와 토목사업본부의 합작품이다. 88호 문화공원 사업을 주건본부에서 접수해 토목공사 부분을 토목본부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각 본부가 현장을 개설해 각자의 주 종목인 토목과 건축을 분담하여 시공함으로써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시화해양레저공원클럽하우스현장(이하 클럽하우스현장)의 강민웅 소장이 짧았던 10개월의 여정을 설명한다.

“토목본부의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웨이브파크를 운영하는 크고 작은 10개의 공용시설 및 관리시설을 시공했습니다. 착공 10개월만인 지난 8월, 시흥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완료했으며 하자 검수, 운영 주체인 웨이브파크에 인수인계 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계절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의 개장을 시작으로 호텔, 마리나 대관람차 등의 추가 조성 사업을 통해 '한국의 골든 코스트'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웨이브파크는 장마철과 한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시간당 천여 개의 파도를 만들 수 있으며 파도의 디테일까지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다.



모두의 기대 속에 300일의 기적을 이뤘다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웨이브파크는 장마철과 한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 8초마다 좌우 2개씩, 시간당 천여 개의 파도를 만들 수 있으며 파도의 높이, 모양, 길이, 강도 등의 디테일까지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타 국내 서퍼뿐 아니라 해외 서퍼들 역시 웨이브파크에서의 라이딩을 기대 중이라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기 위해 더욱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첫 삼을 뜨고 나서 준공 시까지 일요일 휴무 없이 계속 달려온 현장 직원들. 올여름 찾은 태풍과 기나긴 장마 기간에도 불구하고 8월 사용 승인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현장 직원 모두가 밀접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임해준 결과, 뼈뺀 일정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테마 공사와 Surf Wave 공사에서도 다시 한번 파이팅 하겠습니다.”

시화해양레저공원현장 정경서 소장



무에서 유를, 하나에서 셋을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현장은 시화단지1공구현장이 조성한 부지 위에 주택건축사업본부가 수주하여 토목공사까지 진행한 사업이다. 올해 8월 '시화 MTV 4-3BL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사업'에서 시작한 도급계약 체결은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또다시 셋을 만드는 쾌거를 이뤄냈다.

현재 정왕동 현장 사무실에는 레저공원현장, 클럽하우스현장, 시흥웨이브파크프리미오시티현장 직원들이 한곳에 모여 근무한다. 각 현장별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하고, 즐거운 일은 함께 나누며 대우건설의 이름으로 세상에 없던 인공섬 웨이브파크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사가 완료되는 2021년, 웨이브파크의 모든 시설이 정식개장을 맞이하게 된다. 1990년대 스키에서 워터파크로, 이제는 서핑의 시대로. 지속적인 레저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호주, 하와이, 발리로 대표되던 서핑이 이제 시흥 거북섬을 주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와 레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때, 서해안 해양레저 관광 시대를 열어가길 무대의 중심에 대우건설의 발자취가 길이 남길 바라본다.



“하나에서 출발해 셋이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을 바쁘게 마감하고 휴식기간도 없이 바로 다른 현장으로 나선 우리 직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클럽하우스현장에서 노력해준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밝은 긍정의 에너지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시화해양레저공원
클럽하우스현장
강민웅 소장



공사가 완료되는 2021년, 웨이브파크의 모든 시설이 정식 개장을 맞이하게 된다. 지속적인 레저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호주, 하와이, 발리로 대표되던 서핑이 이제 시흥 거북섬을 주목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초고밀도 노동 집약 현장'

클럽하우스현장은 작년 11월 1일, 실시설계 도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삽을 찼다. 공무를 맡은 권민기 대리가 그 순간을 회상한다. “공기가 빠듯하다 보니 시작하면서부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Fast-Track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설계를 검토할 새도 없이 공사에 매진해야 했죠.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았고, 가까스로 나오는 도면마저도 미흡해 저희가 다시 그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할 때는 설계사 대신 우리가 직접 자재를 선정해 발주처에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죠.”

공사를 담당할 권현성 과장도 지난 공사를 떠올리며 혀를 내두른다. “클럽하우스 건물의 가로 길이가 250m인데, 최고 층이 2층입니다. 낮은 건물을 옆으로 쪽 펼쳐놓은 모양새다 보니 장비를 계속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등짐 지고 벽돌 나르며 손으로 자재 운반했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시공 결과물을 딱 하니 제출한 클럽하우스현장. 그 과정에는 직원들의 강도 높은 노력이 숨어있다. 현장 직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초고밀도 노동 집약 현장'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같은 도급 금액대의 타 현장보다 약 3배의 강도로 업무에 매진했을 만큼 노력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상황은 레저공원현장도 다르지 않다. 공무를 맡은 오일훈 과장은 Fast-Track의 공사 수행에 대해 '방영에 쫓기는 드라마의 쪽대본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쪽대본을 받으면서도 전체 공사 기간 중 3개월 이상을 차지하는 동절기 공사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현장 공사 담당 김희창 대리는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 설비를 수용하는 지하 시설물)를 현장 타설 대신 PC공법(Precast Concrete 공법: 콘크리트 자재를 공장 생산한 공법)으로 변경해 공기 단축과 시공 품질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또, 해양구조물의 주안점 중 하나인 방수공사에 폴리우레아방수공법(고압 분사기로 도장 작업을 하는 스프레이 분사형 시공법)을 채택해 양생 시간을 단축한 결과 동절기에도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또 한 번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쳤다. 그 결과물이 바로 All-casing공법이다. 평균 심도가 38m의 부지에 총 6,500본의 기초말뚝 공사를 진행하는데, 현장 부지가 매립지라 굴착한 공벽의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현장에서는 공벽 붕괴를 막기 위해 말뚝에 케이스를 압입해 말뚝 공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 길이인 15m 말뚝을 지상에서 용접한 뒤 한 번에 말뚝 박기를 진행해 안전까지 확보하며 1단계 핵심 시설을 무사히 완공했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현장STAR그램



#시화해양레저공원클럽하우스현장 #시흥에서_경험하는_데일리_스포츠 #서핑은_역시 #도시서핑



#시화해양레저공원현장 #파란_하늘_아래_상어_없는_서핑장 #서핑은_역시 #안전서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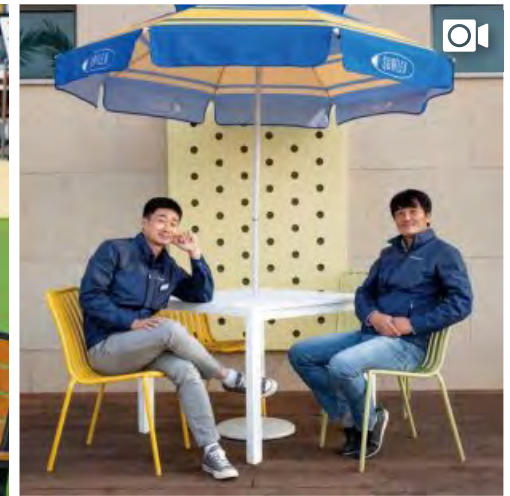
#서핑에_최적화된_인공파도가_기다려요



#장마철에도_겨울에도_밤에도_서핑OK



#쾌적한_테이블에서_치킨_한마리해도_좋겠조



#파라솔_아래에서_몰티브_한잔_어때요



#시흥웨이브파크푸르지오시티현장도_함께



#아시아_최초_도심형_인공서핑장 #아자수_배경으로_놀러온_기분_가득



알면 알수록
새로운,

21세기 인도

INDIA

일생에 꼭 한 번 가야 할 여행지로 손꼽히는 인도.
삶과 종교가 밀착되어 있는 인도는 마주하는 곳마다 낯설고 신비로운
광경을 선사한다. 한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이자 곳곳에서 맥도날드와 KFC를 마주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넓디넓어 알수록 새롭고, 볼수록 새로운 21세기의 인도 이야기.



세계의 물적 및 인적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를 우리는 더 이상 '이상한 나라 앨리스'로 여길 수 없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Incredible India

소 떼가 길거리에 차를 가로막고 사람들은 이를 숭배하고, 대다수 국민이 채식주의자인 힌두교의 나라로 알려진 20세기의 인도. 인도는 믿기 어려운 이상한 나라라는 뜻의 'Incredible India'로 표현되고는 했다. 그러나 21세기의 인도는 다르다. 인구의 25% 이상이 소고기를 먹고 채식주의 인구는 30% 미만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손꼽힌다. 캔터키 프라이드치킨을 파는 KFC가 400여 개 매장에 이르며 스테이크 하우스 프랜차이즈 사업 역시 공공연한 것이 21세기, 지금의 인도다.

국토의 약 60%가 농경지이자 6가지 이상의 기후가 공존하는 이 나라는 쌀과 밀 등 농산물 세계 수출 1, 2위를 다툰다. 바나나 역시 생산량에서나 품종에서 필리핀을 제치고 인도가 세계 1위다. 그뿐인가. 글로벌 경제 규모 상위 5위를 기록하며 삼성과 현대자동차로서는 농칠 수 없는 인적 및 물류 시장을 형성했다. 세계의 물적 및 인적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를 우리는 더 이상 '이상한 나라 앨리스'로 여길 수 없다.

자연과 종교의 숨결을 넘어선 새로운 인도

인도의 존재감은 경제 규모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33배인 인도 대륙,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위치한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가다 보면 28개의 자치행정단위(state)를 만날 수 있다. 그 안에는 14억 명의 사람들이 22개 공식지정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다. 28개의 주에는 인구 80%의 힌두교인과 14%를 차지하는 약 2억 명의 무슬림 그리고 4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 5백만 명의 소수 불교인이 더불어 산다. 문화의 다양성 덕분에 인도라는 하나의 대륙 속 28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로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면면을 경험할 수 있다. 인도 곳곳에 위치한 여러 힌두교 사원은 3억 3천 만의 신들이 내뿜는 묵직한 존재감을 전하며,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사도 도마의 순교지 산 토메 성당은 2,000년 전의 유일한 예수와 기독교 신도들의 모습이 당장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한 감상을 전한다.

다만 종교의 색채를 넘어 인도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행사가 갖는 '선'을 넘어야 한다. 여행사가 안내하는 루트를 따라 40도 폭염에 맨발로 타지마할 무덤 돌바닥을 동동거리며 걷는 대신, 스키를 타고 히말라야를 내려오다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고 다시 고속도로를 타 도시로 접근하는 인도 여행 말이다. 진짜 인도를 경험하는 이 길은 진귀하고 결이 다른 인문학적 이야기를 품고 있다.



먼 나라 인도가 가까이에, 국내 인도문화축제

지난 10월, 춘천 남이섬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도시에서 '사랑, 인도문화축제'가 열렸다. 다행히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덕이다.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4회째인 이 축제는 주한 인도대사관의 주최 행사로, 한국 안에서 인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사람 속에 두었던 여권만 챙기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던 시기에는 대사관의 문화축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조금 남다른 의미다. 9시간을 비행해야 다다를 수 있는 먼 나라 인도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그야말로 '가성비 갑' 여행이다.

한국에는 총 113개의 외국 대사관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인도만큼 자국을 알리고자 여러 지역에서 긴 일정에 거쳐 영화, 음악, 춤, 미술, 음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는 열성적인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프랑스 대사관이 문화원을 통해 영화를 상영하는 등 소규모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인도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사랑, 인도문화축제'만큼 모든 것을 호소하듯 쏟는 경우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다. 매년 한국외대 인도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열리면서 인도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사회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누구나 원한다면, 인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여러 곳에 펼쳐져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4회째인 '사랑, 인도문화축제'는 주한 인도대사관의 주최 행사로, 한국 안에서 인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누구나 원한다면, 인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여러 곳에 펼쳐져 있다.



WRITER



김욱기
한국외대 인도어과 겸임교수와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인도는 지금>, <인도출장가이드>를 썼고, 자타공인 '인도 마케터'로 활동 중이다.

FROM INDIA



인도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인도비하르교량PJ현장에서 편지 띄웁니다.

저희 현장이 2017년 1월에 착공을 했으니 인도에서 벌써 거의 4년을 채워가고 있는 셈이네요. 저희가 인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인파와 자전거 행렬, 무질서한 오토바이와 리샤, 자동차 그리고 이 모든 소음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경적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걸 느끼며 서로 놀라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응 중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인도인들과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개개를 좌우로 저으며 "Tikke"라고 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No"의 의미로 이해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 반대. "Yes"의 표현이었습니다. 타국인들은 끄덕끄덕, 현지인들은 절레절레. 지금까지도 가끔씩 헷갈리는 표현방식입니다.

저희 현장은 인도 내 최대 건설사인 L&T사와 JV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업체와 JV를 구성했으니 경험이 없는 다른 나라의 PJ보다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문화와 사고방식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써 협력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않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주장대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끊임없이 문제를 표출시키고 분석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한 결과, 저희 직원들 말에 담긴 책임감과 존중을 현지 직원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도사람들의 안일함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적응 여부를 떠나 늘 저희를 당황하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이나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지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또 다른 의미로 '이래서 인도에 많은 분들이 수행하러 오시는구나'라며 웃곤 합니다. 저희 현장 직원들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와 코로나 위험을 극복하고, PJ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도비하르교량PJ현장

인도비하르교량PJ은 인도 비하르주 파टना 지역에서 바이살리 비두푸르를 연결하는 총연장 22.76km의 교량 및 접속도로 건설사업이다. 9.76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엑스트라드조교(Extradosed bridge, 횡단교량)' 시공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2015년 모디 인도 총리가 방한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진행된 첫 대형공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사는 이번 PJ를 통해 2000년 다울리 강가 수력발전소 공사 이후 약 16년 만에 인도에 재진출해 인도 현지 대형건설사와 합을 맞추며, 해외토목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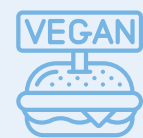
INDIA TMI



갠지스강 한쪽에서는 정화 의식 즉, 신성한 의미를 담아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침 용변을 본다. 정말 기이한 장면이다.



인도비하르교량PJ현장 공사구간에는 보기 드문 담수 돌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운이 좋은 날이면 돌고래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한다고.



인도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다. 이 중 30%는 채식을 철저히 실천하는데, 맥도날드, KFC 등의 프랜차이즈는 물론 바비큐 식당에도 veg와 Non-veg 메뉴가 구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과자나 빵에서도 veg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WORK & LIFE



가족의 온도

가족만이 추고받을 수 있는 온기가 그리운 연말. 이번 11+12월에는 우리 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센터피스, 연말을 맞아 함께 확인해 볼 전 연령 차아 관리법 등 가족 간의 애정과 건강을 높여줄 방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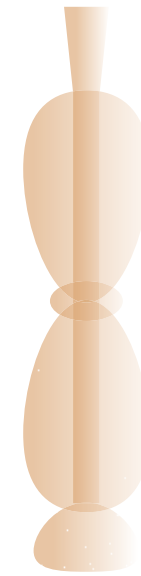
주택건축사업2팀
권수윤 대리



어느 보통날, 꽃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저녁, 축하가 필요한 식사 자리,
집안에 색다른 분위기를 불어 넣고 싶은 어느 보통날. 존재만으로도
특별한 분위기를 전하는 센터피스를 직접 만들기 위해 동료 두 사람이 나섰다.



꽃은 추억과 마음을 싣고

디저트용 도기나 은으로 된 공예품 등으로 식탁에 특별한 분위기를 더하는 센터피스. 여기에 자연스러운 멋과 운치까지 더하고 싶다면 이 계절을 닮은 꽃을 놓아보자.

송이송이마다 다채로운 색과 생김새를 뽐내는 꽃들은 그 향기마저 각별하다. 어떤 꽃과 식물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크고 작은 화기에 따라서도 색다른 정취를 낼 수 있다. 게다가 꽃을 직접 다듬고 만지며 나만의 센터피스를 만들어 본다면 스스로를 위한 힐링의 시간임과 동시에 주변 이들에게 정성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오늘 난생처음 센터피스를 만들어보기 위해 시간을 함께하게 됐다. 주택건축사업2팀의 동갑내기 권수윤 대리와 이창훈 대리. 권 대리와 이 대리가 가장 아끼는 꽃으로 꼽은 것은 아카시아와 유채다. “아카시아를 좋아해요. 언니와 제가 어릴 때 유독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꽃을 살짝 따서 저희에게 향기를 맡게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번 체험에 앞서 어린 시절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렸다는 권 대리는 꽃을 좋아하는 엄마에게, 이 대리는 결혼 6년 차를 맞이하는 아내에게 센터피스를 선물하기로 했다.

한 송이 특 무심하게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것이 꽃의 매력이지만, 오늘은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을 더욱 풍성하게 꾸밀 센터피스를 만들기 한 날. 따뜻한 분위기를 더할 난색 계열의 꽃들이 테이블 위에 오른다. 선명한 노란빛을 띠는 국화과의 다알리아와 거베라, 붉은 장미 그리고 메리골드, 왁스플라워, 유칼립투스, 갈대, 억새 등이다.





계절 따라, 사람 따라, 마음 따라 다양하게

꽃을 고를 때는 송이가 단단하고 줄기가 곧게 뻗어 있는 것을 택해야 꽃들을 더욱 오래 볼 수 있다. 줄기에 달린 잎이 누렇게 변하지 않은지,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듬을 때는 필요한 잎을 제외하고 모두 자른다. 줄기를 사선으로 자른 후 살짝 엮을 가하면 수분이 빠져나가 부패와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센터피스는 꽃을 담은 화기에 따라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지만, 오늘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화기 대신 플로랄 폼을 이용하기로 한다. 꽃을 고정하고 절단된 줄기에 수분을 주며 꽃을 오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스펀지다.

물이 흠뻑 젖어 있어 꽃의 상태를 2주가량 보존해준다. 꽃을 꽂는 첫 단계는 센터피스의 주인공 역할을 할 꽃을 선정하는 것. 형태에 따라 꽃을 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폼 플라워나 매스 플라워로 구분되는 꽃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다알리아, 거베라, 장미 등 꽃송이가 크고 색이 화려한 꽃들이다. 중앙, 좌우, 대각선으로 꽃을 등성등성 꽂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덜 핀 꽃들이 예쁘게 제 모습을 펼칠 수 있다. 그 후 주인공 꽃을 돋보이게 도와줄 작은 꽃, 잎과 줄기 등을 꽂는다. 얼굴이 큰 꽃은 가능한 밑으로, 같은 종류의 꽃은 높이를 다르게, 왁스 플라워처럼 여러 개의 꽃이 작은 형태로 붙어 있는 것들은 빈 공간을 채워주는 식으로 균형감 있게 배치한다. 형태 구성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순간순간이 꽃꽂이의 묘미다.

왁스 플라워, 유칼립투스 등의 작은 꽃과 식물은 '소재'라 부르기도 하는데, 역사나 갈대 등 각 계절에 따라 변화가 많다. 종류와 양이 같아도 꽃을 꽂는 높낮이에 따라, 각각의 배치에 따라, 계절에 맞게 달라지는 소재에 따라 다른 모양새를 띠는 것 역시 꽃꽂이의 매력이다.

“소재주가 없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어요. 식탁 위에 올려 올려 두면 가족이 좋아하겠죠?” 폼에 센터피스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권수윤 대리와 이창훈 대리. 두 사람의 집안이 더욱 환하고 따뜻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생김새에 따라 나뉘는 4가지 꽃 분류

+ 폼 플라워(Form Flower)

화려하고 독특하며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꽃들을 일컫는다. [안수리움, 해바라기, 작약, (왕)거베라, 백합, 카라 등]

+ 매스 플라워(Mass Flower)

화형이 크지만 폼 플라워만큼 형태가 독특하지 않고 꽃잎들이 모여 둥근 형태를 띤다. 센터피스나 꽃다발의 부피감을 살리고 싶을 때 활용한다. [장미, 국화, 카네이션, 튜립, 백일홍, 금잔화, 다알리아, 아네모네, 메리골드 등]

+ 필러 플라워(Filler Flower)

하나 혹은 여러 줄기에 다량의 작은 꽃이 붙어 있어 꽃과 꽃 사이의 공간을 채울 때 사용한다. [안개, 소국, 솔리다스터, 부바르디아, 스타티스, 왁스플라워 등]

+ 라인 플라워(Line Flower)

길고 쪽 뻗은 줄기를 가진 꽃으로, 작품의 외곽선이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역할을 한다. 줄기의 곡선과 직선을 통해 생동감과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다. [벨피니움, 루피너스, 리아트리스, 용담초, 금어초, 유칼립투스 등]



세 살 치아부터 여든 치아까지

우리 가족 입안 건강법

가족의 단란한 시간이 무르익는 연말.
뭣도 한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이 포근한
시기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치아가 필요한
연말을 맞아 우리 가족 치아 관리법을
알아본다.

글. 이금숙(헬스조선 기자)

올바른 습관으로 관리하는 평생 치아



치아는 영구치가 자리 잡는 만 6세부터 삶을 다할 때까지
써야 하는 평생의 도구다. 어린 자녀의 올바른 양치 습관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특히 만 6-12세는 영구치가
나온 뒤 치아가 자리를 잡는 치아교환기로, 충치 발생 위험이
높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불소를 도포하고, 미리
어금니 홈을 메우는 실란트 치료를 할 것을 권한다.
영구치가 나온 뒤 불소를 도포하면 칼슘 등의 무기질이 치아
표면에 결합해 치아 표면을 보호하여 충치 저항성을 갖게
된다. 실란트는 치아의 작은 틈새나 홈에 플라스틱 계열의
복합 레진을 덧씌우는 시술로, 충치가 생길 위험이 4분의 1로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실란트는 충치가 없는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간식을 먹을 경우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선택하게 한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치아의 자정
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외래 빈도 1위, 감기보다 흔한 잇몸질환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기관지염(감기)’를 밀어내고 외래
빈도 1위를 차지했다. 감기보다 빈번한 치아 및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이 만나면 생기는
치태 관리에 힘써야 한다. 식사 후 양치하기 전 거울을 보면
치아와 잇몸 사이 무색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제때 제거되지 않을 경우 쌓이고 딱딱해져
결국 치석이 되고 잇몸 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치석에 세균이
붙으면 잇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이 생긴다. 잇몸에만 국한된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염증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한다.
이때 치조골(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 파괴와 치은퇴축(잇몸조직의
상실)으로 치아뿌리가 노출되어 심한 경우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 빠지기까지 한다. 게다가 잇몸 염증은 혈관 내로 침투해
당뇨병, 심혈관질환, 암 등을 포함한 심각한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치료와 구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음식을 찌꺼기가 딱딱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시기는 보통 3개월이므로, 잇몸 질환 정기 검진을 위해
스케일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2013년부터 만 20세 이상은
연 1회 스케일링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연 3회가량 스케일링을 받아 치주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중년의 치아, 임플란트 후 관리가 수명 좌우



충치나 잇몸질환이 심해 치아를 빼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의 모양은 물론
음식을 씹는 힘까지 90% 이상 복원해주는 시술로,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돼 수술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손실된 잇몸뼈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장치를 직접 식립하기 때문에 주변 치아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강한 유지력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졌을 때의 이야기이다.
임플란트는 전문의의 숙련도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관리 여부가
가장 막중하다. 인공치아인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못 느낄 수 있다.
또 임플란트 구조상 자연 치아보다 염증에 취약하다. 그래서
임플란트 부작용 1위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다. 칫솔질 외에
치간칫솔에 치약을 묻혀 사용하기만 해도 주위염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당뇨병 환자는 세균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임플란트 수술 후 치아가 흔들리거나,
빨 혹은 혀를 자주 씹거나, 자주 피가 나거나 음식물이 낀다면
임플란트 파손·주위염이 진행되는 신호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병원을 찾도록 한다. 또한,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말린
오징어나 누룽지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은 멀리해야 한다.



#건조한 겨울엔 틈틈이 수분보충을
겨울은 입안이 쉽게 건조해져 세균이 번식
하기에 더욱 좋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해
입안의 공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 구강이 건조하면 산도가
감소하고 박테리아가 증식해 구강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가능한 물을 자주
섭취해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치아 마모와 비대칭 유발하는 턱 괴기
책을 보거나 업무에 집중할 때 혹은
생각에 잠길 때, 자기도 모르게 한쪽
턱을 괴는 경우가 있는데, 턱을 괴면 근육에
압력이 가해져 머리, 목, 턱 등의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부정교합,
치아 마모는 물론 얼굴 비대칭 역시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음주 후 우유 한 잔 꿀꺽
술을 마시면 입 속 세균의 활동이 증가
하며 구강 내의 수분이 더 많이 사라진다.
음주 후 바로 양치질을 할 수 없다면
우유로 입을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시면 입안이 산성을 띠며 치아
표면이 부식될 수 있는데 알칼리성인
우유가 이를 막아준다.

flight



다가온 2021년, FIGHT or FLIGHT!

2021년의 핵심 화두는 Fight or Flight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회와 위기가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당장 맞서 싸우든 잠시 자리를 피해 싸울 준비를 하든 선택해야 한다. 2021년,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비즈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트렌드 이슈 6가지를 주목해본다.

글. 김용섭
(트렌드 분석가, <라이프 트렌드 2021> 저자)

f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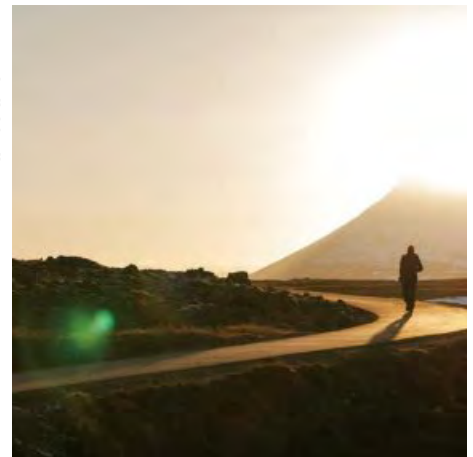
2021



safety first



extreme individualism



SAFETY FIRST: 트렌드가 된 안전

동시대의 국민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을 겪었던 적이 있었을까? 마스크를 비롯한 손 소독제, 손 소독기, 체온계 등 위생용품이 역대급으로 팔렸고, 위생용품과 함께한 2020년은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욕망을 키워주기에 충분한 해였다. 개인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욕망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 되더라도 손 씻기와 개인위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개인 위생 수준이 더 높아지고, 의식주 전반에 안티바이러스를 비롯한 위생 관리와 안전 관리가 퍼져 나갔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어가던 파티션의 판매율 급증, 안티 바이러스 원단 사용 확산, 항균 코팅된 제품과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위생 관리 확대, 사람 대신 로봇이 서빙하거나 주방에서 요리하는 등 생활 및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확대 역시 '안전제일'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의 결과다. 세이프티 퍼스트가 앞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욕망이자 사회, 문화적 메가트렌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말이다.

EXTREME INDIVIDUALISM: 믿을 것은 나뿐이다

극단적 개인주의(Extreme Individualism)는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 가치관, 이해관계에 집중한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보다 개인이 우선되는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역시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 이를 위해 자기 능력을 키우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충분한 돈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7월 15일까지의 재테크/투자 카테고리 책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사상 최대 신규 주식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한다.

'믿을 것은 나뿐'이라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에게는 재테크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와 운동도 필수다. 뷰티, 패션, 건강, 몸매 관리 모두 관계를 위한 중요 욕망이지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며 중심으로 관계를 만든다는 점이 극단적 개인주의의 속 관리의 포인트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관계를 주도하고, 이를 위해 자신을 가꾸고 꾸미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다. 2010년대 개인주의와 취향의 심화가 2020년대 극단적 개인주의로 이어지는 배경이 된 셈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그 흐름이 더 가속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극단적 개인주의는 더욱더 강화된 취향 심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고, 소비에서건 삶의 방향이나 태도에서건 자기중심적 태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new local



ultra-lightweight

NEW LOCAL: 공간을 향한 욕망

로컬은 수년째 뜨거운 트렌드 화두였다. 그동안 '트렌드로서의 로컬'은 인구밀도 높고 경제 기반이 튼튼하지만 양극화가 극심한 대도시에 대한 저항이자 반발 혹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수년간의 로컬 트렌드에서 멋진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만 쏟아졌다는 것은 사실 진짜 로컬이 아닌 로컬에 대한 판타지였음을 증명하는 예이기도 하다. 이는 로컬이 가진 콘텐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로컬을 배경으로 도시에서의 삶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제주로 몰려갔던 사람들은 다시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대도시에서도 개발이 덜 된 동네에 대한 재발견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만 노출시켰다.

그동안 이어져 오던 로컬 트렌드에 '안전한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더해지며 **새로운 로컬**이 등장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대都市는 전염병에 취약한 곳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를 떠나겠다는 생각이다. 팬데믹이 초래한 원격 및 재택근무의 확산 역시 로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촉진하고 있다.

로컬의 진화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현지인이 빠진 로컬은 소비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삶의 공간으로서의 로컬, 생산할 상품이자 콘텐츠로서의 로컬, 대도시에선 경험하지 못할 체험으로서의 로컬이 더 필요하다. 대도시의 삶에 반발해서 선택한 로컬이 아니라, 로컬 자체가 가진 매력에 빠져서 선택한 로컬이 필요해진 것이다. 덕분에 로컬 트렌드는 진화하며 더욱 성장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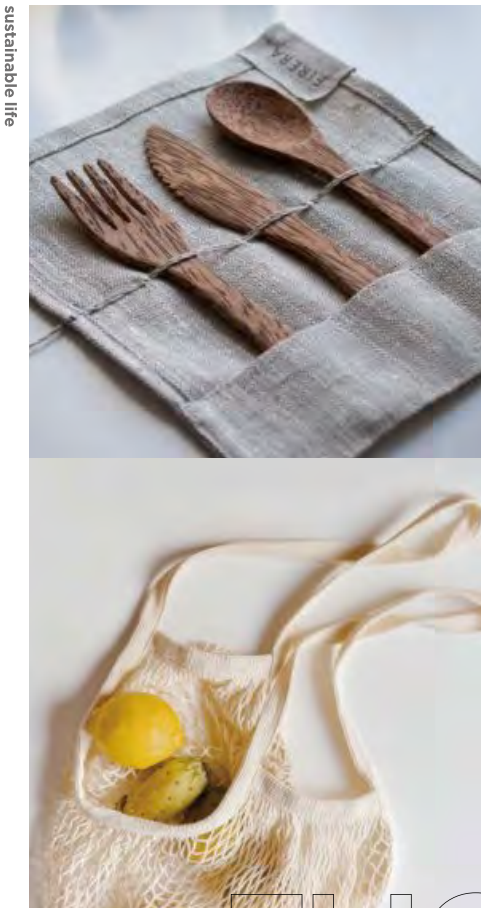
ULTRA-LIGHTWEIGHT: 특별한 가벼움

가벼워진다는 것도 욕망의 변화와 관련 있다. 가벼움은 소유, 패션과 소비, 환경적 개선을 도모하는 트렌드 등에서도 드러나는 공통 코드다. 지금의 **미니멀 라이프**는 현재의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인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거쳐 더욱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건강과 생명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일상 속 즐거움에 주목하게 됐으며,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게 됐기 때문이다. 명상뿐 아니라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드는 것 역시 울트라 미니멀 라이프다. 패션업계에는 '가벼움'에 대한 바람 역시 주목할만하다. 활동성을 높이고 활동성 넘치는 패션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로 자리 잡은 무선 이어폰, 탈코르셋 열풍에 이은 노브라 유행과 브라렛 등이다.

B급 문화 소비 현상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멋진 것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기성세대는 멋지고 좋은 것만 동경하고 따라 했지만, MZ세대가 무언가를 따라 하고 욕망하는 이유는 재미다. 지금은 오래 들여다보고 즐길 여유가 없는 시대로, 유튜브를 비롯한 짧고 가벼운 스낵 컬처는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소비자의 태도가 이러하니 기업의 마케팅 역시 가벼울 수밖에 없다. 특히 주로 식품 기업들이 B급 감성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의미와 메시지가 필요 없어진 시대가 되었다기보다는, 이미 검증되고 잘 아는 일상 소비재에서 굳이 의미와 메시지를 찾기보다 가볍고 재미있게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SUSTAINABLE LIFE: 다시, 계속, 오래 지속 가능한 '환경 파괴 없이 오래 지속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은 우리의 일상과 소비에서 중요한 관점과 태도가 됐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서스테이너블 라이프**가 더더욱 중요해졌다. 전염병의 실체가 생태계 파괴, 기후 위기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며 환경과 지구가 함께 지속가능한 라이프를 누리는 것이 필수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까다로운 사육 방식 때문에 일반 계란보다 2-3배 정도 비싼 동물 복지 계란. 하지만 이마트의 2020년 1-5월 동물 복지 계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한국 맥도날드는 사용하는 계란을 2025년까지 100% 동물 복지 계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콩나물시루 매출이 증가한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위메프의 2020년 3-4월 콩나물시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4% 늘었고, 상추 모종은 3,398% 늘었다. 마트에 가면 당장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직접 키워 먹겠다는 것은 자급자족 트렌드이자, 환경 운동으로 시작한 **슬로 라이프**의 일부다. 슬로 라이프와 슬로 시티는 결국 환경과 지구, 사람의 공동체를 얘기한다. 결국 서스테이너블 라이프를 추구하는 셈이다. 팬데믹이 준 긍정적 효과 중 하나다.



sustainable life

UNCONTACT ECONOMY: 날개 단 비대면 경제 글로벌 IT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력 사업은 언택트 이코노미(Uncontact Economy), 즉 **비대면 경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다. 사람과 직접적 접촉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사업이자, 과거 오프라인에서 구현되는 것들을 온라인 혹은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것이 곧 이들의 사업이다. 2021년 더 많은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할 것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비대면 환경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대면이 늘어나게 된 것은 결국 편리함 때문이다. 편리함에 대한 우리의 욕망은 시장을 계속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이후 팬데믹을 통해 편리에 안전이란 욕망이 결합되었고, 이를 가장 잘 충족해주는 것이 바로 비대면 서비스다. **편리와 안전**,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비대면 서비스는 결코 우리가 포기 못 할 기본적 욕망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비대면 시대에 대면 서비스는 모두 사라져야 할까? 영업이든 판매든 오히려 사람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더 확실한 경험, 더 좋은 서비스, 태도가 아닌 내용 자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대면의 문화와 정서를 비대면에 녹여내는 것, 비대면의 분석적 장점을 대면에 녹여 내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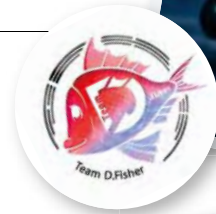


uncontact economy

낙시동호회 'Team D.Fisher' 갑오징어 대회 자, 떠나자 갑오징어 잡으러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신진항.

새벽 4시임에도 밤샘 조업을 마친 어선들과 이제 출조를 시작하려는 배들로
선착장은 환히 빛나고 있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틈,
회사 낙시동호회 Team D. Fisher(팀 디피셔) 멤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어, 주꾸미 NO~ 갑이만 OK!

오늘은 팀 디피셔의 갑오징어 대회가 열리는 날. 갑오징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총 15명으로, 낚싯대를 잡은 지 20년을 훌쩍 넘긴 전문 낚시인부터 갓 낚시에 입문한 초보까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자리 추첨을 하고 조과를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블레스호는 갑오징어 낚시 포인트인 외연도를 향해 새벽바람을 가로질렀다.

선상낚시의 기본은 선장님의 사인을 잘 따르는 것이다. 버저가 한 번 울리면 낚싯대를 내리고, 두 번 울리면 낚싯대를 올려야 한다. “빠~!” 대회 시작을 알리는 선장님의 버저가 울렸다. 1분이 채 지났을까, 최영태 전 홍보팀 차장의 낚싯대가 포물선 형태로 휘기 시작하더니 이내 수면 위로 갑오징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질세라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이대로만 간다면 오늘의 대회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이내 잠잠해진 갑판. “빠빠~!” 뱃머리를 돌려 다른 포인트에 정착한다. 전기계장설계팀 김성경 대리의 낚싯대가 묵직해진다. 모두의 집중 속에 달려올라 온 것은 바로 문어다. “아이고, 문어가 갑이를 잡아먹는 포식자인데...그럼 이 부근에도 갑이는 없는 거야~” 동호회 회장 김흥수 과장의 탄식이 흘러나온다. 그래도 문어를 건져 올리는 선수들의 표정은 싱글벙글이다. 몇 번의 포인트 이동 끝에 갑오징어의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다. 배 앞머리에 자리를 잡은 김흥수 과장과 김정훈 차장의 접전을 중재하기라도 하듯 점심 도시락으로 휴식기를 가져본다.



모두 함께 느끼는 손맛이 제대로지

갑오징어의 낚시 시즌은 9~11월이지만, 이 중에서 가장 수확률이 좋은 시기는 뭐니 뭐니 해도 10월이다. 하지만 갑오징어는 촉수로 사냥하는 특성이 있어 입질이 매우 민감한 어종. 낚시 고수들에게도 갑오징어 낚시는 쉽지 않다. 게다가 멀리 앞에는 장사가 없다. 스테이와 선실 휴식을 반복하다 결국 기권을 선언한 선수들이 등장한다. 남은 선수들이 분발해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대회를 마무리한다.

타이틀이 갑오징어 대회인 만큼 오늘은 문어, 주꾸미는 세지 않고 오직 갑오징어로만 순위를 정하기로 한다. 역시는 역시. 동호회 회장 김흥수 과장이 총 17마리 조과를 기록하며 선두에 올랐다. 전년도 대회에서 우승자가 35마리를 올린 것에 비하면 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다들 아쉬운 마음이 역력하지만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를 했다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다. 하긴, 혼자 해도 재미있는 낚시. 여럿이 함께하고 삼까지 나누었으니 말이다.

다시 신진항으로 돌아오는 길.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회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끝미에 속이 뒤집히고, 고패질에 온몸이 피곤해도 낚시가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연 '손맛'도 있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대대홍 17기 1라운드 미션 정대우 과장의 흥과 끼를 펼쳐라!

대한민국의 인기 유튜버 그리고 인플루언서에 도전하는 정대우를 돕기 위해 대대홍 17기가 나섰다. 정대우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할 대표곡과 인스타툰을 만드는 것이 이번 미션! 댄스 챌린지, 그림일기를 비롯해 작곡부터 악기 연주까지 모든 것을 섭렵한 싱어송라이터, 마미손을 뒤이을 인형탈형 래퍼로서의 모습까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만나보자.



인스타툰



우수상

우주yeah(18팀)
**정대우
그림일기**

특징
취준생 정대우부터 미래 정대우의 꿈까지!
정대우 삶의 중요한 순간을 짧은 그림일기 형태로 구성

매력 포인트
소소한 일상과 회사생활 등 구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와 퀄리티 높은 작화

정대우 대표곡



최우수상

대우자(3조)
**정대우의
대우생활**

특징
팀원 모두가 작사, 작곡, 악기 연주까지 참여해 정대우
과장만을 위한 창작곡을 제작

매력 포인트
하와이언 풍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힘찬 출근길부터
즐거움 퇴근길까지 정대우 과장의 하루를 녹여냄



우수상

은가비(2조)
발라버려

특징
최근 <쇼미더머니 9> 방영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힙합 장르를 선택해 정대우의 흥과 끼를 표현

매력 포인트
귀여운 정대우 손인형과 손을 이용한 제스처를
크로마키 기법으로 촬영



우수상

아더(12조)
**An_other
Daewoo**

특징
경쾌한 록 베이스에 힙합을 가미한 멜로디가 귀에 쏙쏙!

매력 포인트
신나는 가사 그리고 정대우 과장과 팀원들이
함께 추는 칼군무



사내 헌혈캠페인 방울방울 사랑 나눔

회사는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약 11일에 걸쳐 본사에서 '2020 대우건설 가족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의 실천인 동시에 자신의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헌혈 행사에는 약 110여 명의 임직원이 헌혈 참여와 헌혈증 기부에 동참했다.

글로벌지원팀 조효영 사원

헌혈을 하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사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마다 건강관리를 잘해왔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저의 헌혈 동참으로 사그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팀 김유경 간호사

따뜻한 당신의 30분이 간절한 어떤 이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헌혈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1년에도 헌혈을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눠 주세요.



프리론티팀 이용호 사원

입사 전 '나눔이어로즈' 활동을 해오다 최근 바쁘다는 이유로 헌혈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요. 회사에서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마련해주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헌혈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현장준비반(교육) 진장호 과장

헌혈로 건강 체크도 하고 기부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뜻깊은 취지의 행사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혈액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팀 정대우 과장

코로나19로 인해 혈액량이 많이 부족하지요? 게다가 헌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더해져 혈액 수급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 규정만 잘 지키면 문제없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도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토목건설팀 이대우 차장

말라리아 제한지역인 파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헌혈에는 동참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생긴다면 그때는 꼭 헌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2021 〈대우건설인〉

사보 <대우건설인>은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올해 사보는 어떻게 보았는지, 2021년 사보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직원들과 직원 가족의 사연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사보에 직원 이야기가 더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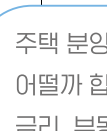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이 매년 기다리는 정대우 스티커! 덕분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보에서 한 번쯤 대우건설의 옛이야기를 다뤄 보면 좋을 듯합니다. 20년 전 회사에서 했던 행사, 10년 전 직원들의 사진 등 지난 이야기들을요~



내년 사보에서는 언론에서 이슈 되는 회사 내용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공유하고 회사가 나아갈 점 등을 다뤄보면 어떨까요? 경험 많은 시니어들의 무기명 사설 형식으로, 부정적인 현황까지 모두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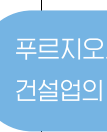
주택 분양 소식 등 개인적으로 도움 되는 정보가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직원이 많은데, 주식, 금리, 부동산 등 관련 경제 이슈를 공유해주세요~



지금은 사보 접근성이 조금 낮다고 생각해요. 바로넷 팝업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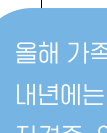
사보 이벤트에 당첨되어 가족사진이 수록되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업계 관련 국내외 트렌드나 동향을 알 수 있는 전문적인 칼럼이 한 번씩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푸르지오의 분양 일정, 현장별 홍보할 수 있는 특징적인 내용, 건설업의 미래 전망' 이야기도 사보를 통해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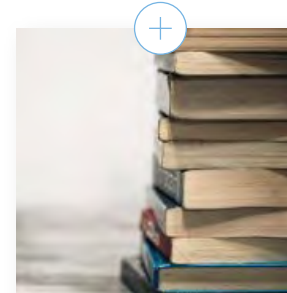


최근 트렌드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많이 보고 싶어요. 해외 현장이나 국내 현장 주변 관광지나 맛집 소개도 보고 싶고요.



올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표지 이벤트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도전을 유도하는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자격증, 영어, 다이어트 등 소소한 도전을 함께 해볼 수 있도록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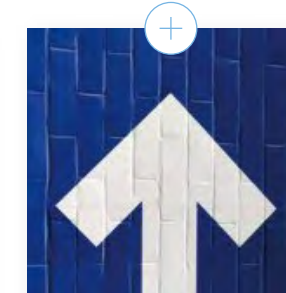
... 회사생활을 통해 2021년에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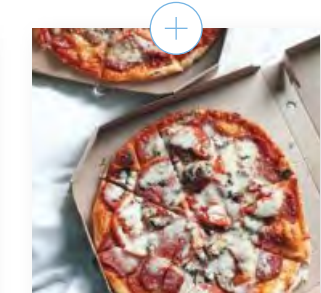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증 취득!
Daniel Chang



마스크 벗고 사람 많은
곳에서 다 같이
팀 회식을! 동료들과
어울려 보고 싶어요
영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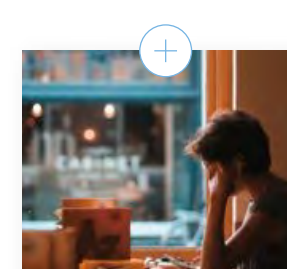
2020년보다 발전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컨트롤의 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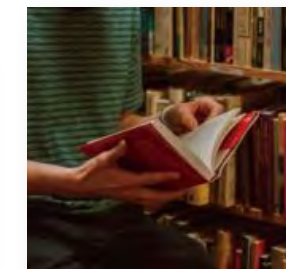
대형 PJ 수주 및 수주 기념
전 분부 피자 돌리기?ㅎㅎ
오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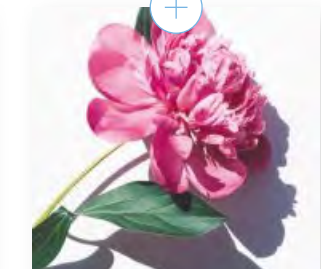
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나의 역할을 하는 것
대찬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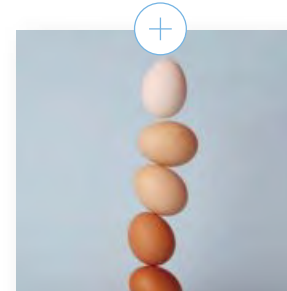
사업영역 확장
을지로골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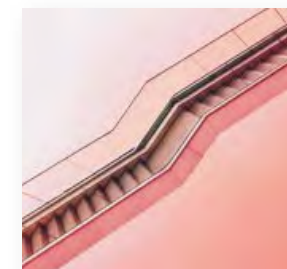
지금 내가 하는 일
마스터하기
유프라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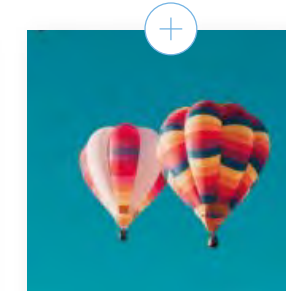
승진과 결혼
우르릉랑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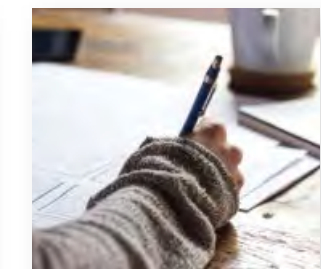
균형감각 갖기
JW



업무 능력 향상
울리



진급하기
위랑



자기개발!
스탈리스트

E&C CHAMPION 및 공로상 수상자

E&C CHAMPION

부문	성명	직급	소속
시공/CM	최규정	부장	가산센트럴푸르지오시티현장
	정운배	부장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현장
영업	김정훈	부장	토목사업팀
	최덕신	부장	주택건축사업2팀
	한영수	부장	울산S-OIL#2SPM현장
설계/구매/시운전	심철진	부장	토목기전외주팀

수주공로상

부문	수상팀	팀장
수주공로상 최우수	주택건축사업3팀	전용수 부장
수주공로상 우수	해외토목사업1팀	김형배 상무
	공공사업팀	김문수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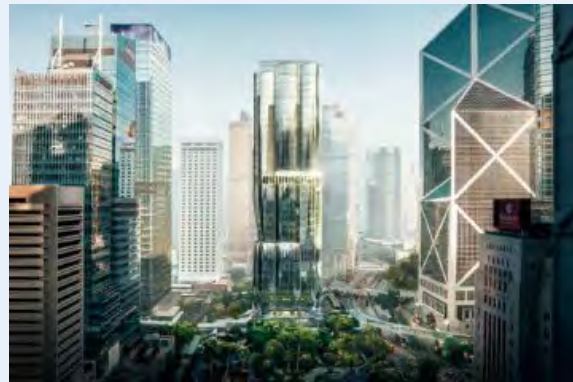
검단3구역9블록1로트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회사는 지난 10월 6일, 검단3구역9블록1로트 공동주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 동의 아파트 1,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창원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지난 9월 26일, 상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63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7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초고층 건물 변위 관리기술, 홍콩에 수출

10월 14일, 회사가 독자 개발한 BMC(Building Movement Control : 초고층 시공 중 변위 관리) 기술을 홍콩 고층 복합타워인 머레이 로드 타워 공사에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적인 건축스튜디오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ZHA)가 설계한 비정형 초고층 건물인 머레이 로드 타워는 지상 36층, 지하 5층, 높이 190m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시공 중 발생하는 높이, 기울기 등의 변형을 사전 예측하는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노원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수주

회사는 지난 10월 12일, 대구 노원동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1가 228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의 아파트 449세대, 오피스텔 69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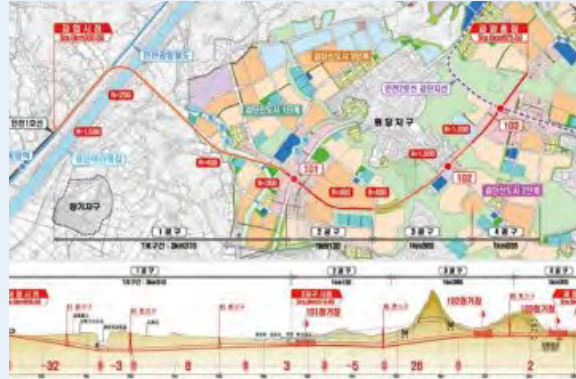
광양 황금지구 2-2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회사는 지난 9월 25일, 광양 황금지구 2-2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전남 광양시 황금동 519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의 아파트 5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야탑동 403번지 물류센터 PCS 용역 수주

지난 9월 18일, 회사가 성남시 야탑동 403번지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PCS(Pre-Con Services) 용역사로 선정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03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3층-지상 5층, 물류센터 1개 동에 대한 PCS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2공구 수주

회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2공구 건설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이번 사업은 인천시 서구 원당동(매천)~원당동(근린공원3)을 잇는 도시철도 1.13km, 정거장 1개소 및 환기구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수주

회사는 지난 9월,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1-1번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에서 회사는 지하 5층-지상 20층의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홍콩판링도로PJ(현장) 계약서 서명식 개최

회사는 지난 9월 17일, 홍콩판링도로PJ(현장)의 발주처인 CEDD(Civi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와 CEDD North Development 사무실에서 Fanling Bypass Eastern Section PJ의 계약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PJ는 홍콩 북부 Fanling 지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고속도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가도로 건설공사로, 회사는 8월 14일 착공을 진행했다.



해외 도시개발 협력사업 발굴 MOU 체결

지난 9월 11일, 회사는 LH 오리사옥 글로벌상담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외 도시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을 통해 회사는 LH와 협력해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트남THT1단계아파트(STARLAKE H9CT) 준공

지난 10월 20일, 베트남THT1단계아파트현장이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최종사용 승인을 받았다.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내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4층의 3개 동 아파트 6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했다.



보츠와나교량PJ(현장) 준공

지난 9월 5일, 보츠와나교량PJ(현장)이 잠비아와 보츠와나 정부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이번 현장은 잠비아와 보츠와나 양국의 국경인 잠베지강을 가로지르는 길이 923m, 폭 18.5m의 Extra-dosed교와 687m의 접속도로 및 2,170m의 단천철도를 시공함으로써 남아프리카 일대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개선에 기여했다.



경영진 수방사 방문

김형 사장과 경영진이 10월 6일, 수도방위 사령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6년 수방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회사는 위문품 전달 및 1사 1병영 활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업무협약 체결

회사는 10월 6일, 인천 중구청과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더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임대사업자가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제공하며 인천 중구청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도대체 우리 소장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김혜진(울산S-OIL#2SPM현장 김선경 부장)
“오늘 현장에 정대우 왔다 갔어”
사보 촬영을 진행했다는 소식에 9+10월호가 도착하자마자 현장 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아빠의 사진이 같이 실린 기사에서 S-OIL#2 현장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QR코드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보니 정대우바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모습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모습과 함께요.
일주일에 한 번 볼 정도로 먼 현장에서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아빠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과 존경을 표합니다.



안소연(주택건축사업1팀 안태선 차장)
아빠가 정대우 이모티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대우가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몰랐는데, 정대우의 취미와 성격 등을 자세히 소개한 ‘대우건설인+’ 칼럼을 읽고 정대우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대우가 빨리 승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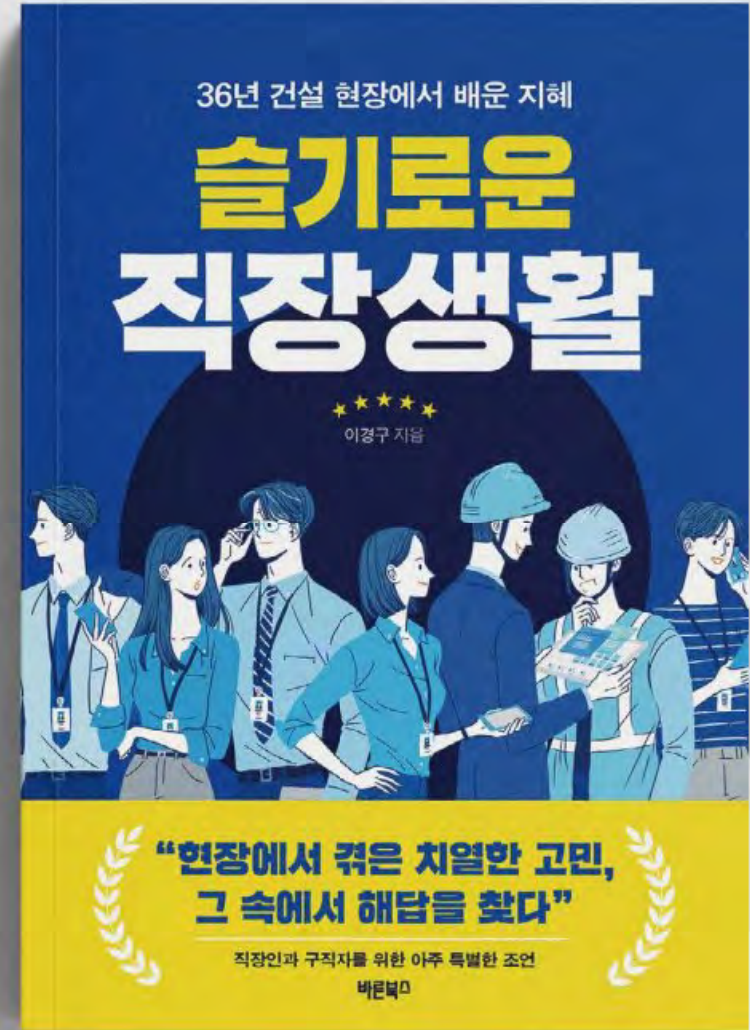
플랜트구매팀 이윤지 대리
S-OIL#2 SPM 현장은 제가 주요 자재 구매를 담당했던 만큼 애착이 큰 현장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buoy의 구매 및 납기 expediting을 담당했는데, 매주 컨퍼런스 콜을 통해 크고 작은 이슈들을 해결하며 납품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해 더욱 보람이 큼니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이 지속적인 수주와 영업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대우건설 파이팅!



임혜란(나이지리아NLNGT7ONSHOREPJ (라고스현장) 전상훈 대리)
‘아프리카 대륙의 겁 없는 성장, 나이지리아’ 기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이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곳은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사보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 소식을 들려주세요~

재무기획팀 문성원 사원
‘취미유발자들’ 칼럼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 학교 동아리 선배는 관심을 행동으로 실천해 현재 롱보드로 출퇴근을 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수준급의 스킬을 구사하고 있고요.
만날 때마다 보드 타고 오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해당 내용이 칼럼으로 나와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은득(카타르E-RING도료현장 정삼균 차장)
정대우가 간다 유튜브 소개 기사를 통해 남편에게 말로만 듣던 현장의 아침체조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근무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국내외 현장에서 가족과 회사를 위해 땀 흘리는 모든 대우건설인들을 응원합니다.
모두 정대우 과장님이시고 이미 책임사 이십니다.



당신의 상사가 대답해주지 않던 그 질문에 대해, 대우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전 임원이 대답한다.
이경구 상무는 80년대 리비아 현장에서부터 뉴타운을 넘어, 최근 도심 재개발 재건축까지 거친 현장 전문가다.
여러 주택 사업본부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의 실타래를 풀었다.
수금, 대관, 민원, 준공 등 문제를 대하는 당시 선배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독자가 마주하는 문제를 조금 '먼저' 만나보았던 선배의 생각을 엿본다.
지금 당신이 가진 궁금증을 해결할 힌트가 이 책에 있다.

이경구 지음 / 바른북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enc.com
02-2288-3297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MILL 컨택션허더
2등-2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3등-3명 기프트콘 2만 원 상당

대우건설 전 대표이사 한용호
지금까지 대우건설을 지켜온 창조, 도전, 희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 재임 동안 노력한 이의 정성과 지혜가 담긴 귀중한 기록이다.
이 슬기로운 직장생활의 지혜가 널리 퍼져 알려지기를 바란다.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성우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자신과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조훈희
문제없는 현장은 없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번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저자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깨달은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풀어낸 인생 지침서다.